

다시 뛰는 한국경제! 기업이 앞장섭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www.fki.or.kr

(150-75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2 T. 02-3771-0406 F. 02-6234-5323
담당부서: 사회공헌팀 담당부서장: 손경숙 팀장 담당자: 박현정 연구원 메일: mghsz@fki.or.kr

문서번호 제0091호 발송일자 2011.03.07
수신 대표이사
참조 비서실, CSR·윤리경영·사회공헌·기획·지속가능경영·HR·홍보담당 부서
제목 전경련 CSR 해외 연수단 파견 안내

1. 귀사의 발전과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우리기업의 윤리경영·사회공헌 등 CSR 확산 사업들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난 2005년부터 「CSR 해외 연수단」을 파견해 왔습니다.
3. 올해는 특히 ISO 26000 등의 국제 규범화 움직임과 국내기업의 현지 글로벌 CSR 확대 등이 2011년 CSR 최대화두로 예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유럽 선진기업들의 대응 전략과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CSR 추진현황 등을 직접 벤치마킹하고자 「2011 전경련 CSR 해외연수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4. 동 해외연수단은 영국에서 개최되는 유럽 최대 CSR 컨퍼런스 중 하나인 'The 10th Annual Responsible Business Summit'을 참관하고, TESCO, HSBC 등 업종별 세계적인 기업들뿐만 아니라 영국 최대의 CSR 센터(BITC) 및 '옥스퍼드대학 스쿨 재단'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2011년 CSR 실천전략 수립, 글로벌 네트워킹의 기회 마련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기 간 : 2011년 5월 1일(일) ~ 5월 8일(일)
 - 방 문 지 : 영국 런던 지역
 - 대 상 : 담당 임원 및 부서장 30여명(부서장 이상 참석이 어려울 경우 실무자 참석 가능)
 - 주요활동 : 'The 10th Annual Responsible Business Summit' 참가, 업종별 세계적인 CSR 우수기업 및 기관 방문(TESCO, BP, HSBC, BT 등 3개 기업과 옥스퍼드대학 스쿨 재단, 'BITC' CSR 센터 방문)
 - 참가비용 : 1인 750만원, 컨퍼런스 참가비 포함(£1,095/1인, 첨부내용 참조)
 - 신청마감 : 2011년 4월 1일(금)(단, 정원 30명 초과시 사전 마감)
 - 문 의 처 : 전경련 사회공헌팀 박현정 연구원
(Tel : 02-3771-0406/ Fax : 02-6234-5323/ Email : mghsz@fki.or.kr),
국제경영원 CSR연수단 사무국 오준석 파트장
(Tel : 6336-0545/ Fax : 3771-0141/ Email : junsuksk@imi.or.kr)
- ※ <첨부> 1. 2011년 전경련 CSR 해외연수단 파견계획 1부, 2. 전체 프로그램, 3. 전경련 CSR 해외연수단 참가신청서, 4. 컨퍼런스 의제 및 방문 기업·기관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허창수 

2011년 전경련 CSR 해외 연수단 파견계획

□ 취지

- ISO26000 등의 국제 규범화 움직임에 대한 해외 우수기업들의 대응전략과 CSR 추진현황을 탐방·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향 모색
- 지속가능경영 주요 선도기업인 지속경영임원협의회·사회공헌위원회 위원들 중심으로 연수단을 구성하여 해외 선진사례 직접 체험 및 글로벌 네트워킹 기회 마련

□ 2011년 해외 연수단 개요

- 기간/방문지 : 2011년 5월 1일(일) ~ 8일(일), 7박 8일, 영국 런던
- 주요내용 : 「제10회 Responsible Business Summit」 컨퍼런스* 참가, 글로벌 CSR 우수 기업과 CSR 센터, 옥스퍼드 대학 스콜재단 방문

▶ 컨퍼런스 개요 : 유럽 내 가장 큰 규모의 CSR 컨퍼런스 중 하나로 PepsiCo, Alliance Boots, Unilever, Panasonic 등 7명의 세계적인 기업 CEO가 강연하고 Mark&Spencer, DHL, Financial Times, Toyota 등 글로벌기업 임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발표, 토론하는 21개의 CSR 실질 전략과 사례들을 접할 수 있음

- 1)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영국, 유럽 등 글로벌 기업들의 New CSR 전략·사례를 통한 베스트 프랙티스 공유
- 2) 총 참석자 400여명 중 65% 이상이 실무 임원급으로 구성되어 CSR 관련 선진 기업들의 실무적 어려움과 CSR의 경영전략화 노하우를 접할 수 있는 기회
- 3) 미국 기업의 중동·아프리카 CSR 사례, 네덜란드 기업의 신흥경제국 진출 전략 등 글로벌 CSR 사례들을 접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해외 CSR 현지화 전략 수립에 참고 가능

- 기관 방문 : 옥스퍼드대학 스콜재단, BITC(Business in the Community) CSR센터
- 기업 방문 : **Tesco, BP(British Petroleum), Shell, BT(British Telecom), HSBC, Standard Chartered Bank, Barclays Bank** 중 3개 기업

※ 컨퍼런스 어젠다와 방문 기업·기관에 대한 내용은 <첨부 3> 참조

- 프로그램 : <첨부 2> 참조
- 참가자 : 본회 지속가능경영·사회공헌 협의체 위원 및 기업 CSR 담당자
- 주최 :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 : 전경련 국제경영원,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 참가비 : 1인 750만원, 컨퍼런스 참가비 포함
 - 개인 별도신청 시 실질참가비는 Standard 1인 £1,345 이나 본 연수단 참가자에게만 £1,095로 할인혜택 부여
 - 항공권 이코노미클래스 기준, 호텔 2인 1실 기준, 환율 및 유가의 급등락에 따라 출발 시 연수 참가비 변동 가능, 여권 및 비자는 개인별 자체발급 기준

<첨 부2> 프로그램

날짜	지역	교통편	시간	일정	식사
제1일 5/1 (일)	인천 런던	KE907 전용 버스	11:00 13:15 17: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국제공항 3층 약속 장소 앞 집결 인천공항 출발(13:10) ✈ 런던 도착(16:20), 12시간 소요 런던 도착 후 석식 및 호텔 투숙 	석: 한식
				Hotel : Novotel West or Same	
제2일 5/2 (월)	런던	전용 차량	08:00 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스퍼드 대학으로 이동(1시간 30분 소요) ☞ 옥스퍼드대학 스콜재단 방문 : CSR 및 경영의 관점에서 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과 사회적기업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 ☞ 런던 귀환 · 석식 및 호텔 투숙 	조: 호텔 중: 현지 석: 한식
				Hotel : Novotel West or Same	
제3일 5/3 (화)	런던	전용 차량	07:00 09:00 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조식 후 ☞ The 10th Annual Responsible Business Summit 참가 (09:15~18:20) · 석식 후 호텔 귀환 및 휴식 	조: 호텔 중: 호텔 석: 한식
				Hotel : Novotel West or Same	
제4일 5/4 (수)	런던	전용 차량	07:00 09:00 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조식 후 ☞ The 10th Annual Responsible Business Summit 참가 (09:15~17:35) · 석식 후 호텔 귀환 및 휴식 	조: 호텔 중: 호텔 석: 한식
				Hotel : Novotel West or Same	
제5일 5/5 (목)	런던	전용 차량	10:00 14:00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조식 후 ☞ 기업방문 : 'HSBC' or 'Barclays Bank' or 'Standard Chartered Bank' 중 1곳 ☞ 기관방문 : Business in the Community CSR 센터 ☞ 컨퍼런스 디브리핑(모더레이터 : CSR전문가) · 석식 후 호텔 귀환 및 휴식 	조: 호텔 중: 현지 석: 한식
제6일 5/6 (금)	런던	전용 차량	10:00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조식 후 ☞ 기업방문 : 'BP'(British Petroleum) or 'Shell' 중 1곳 ☞ 기업방문 : 'Tesco' or 'BT'(British Telecom) 중 1곳 석식 후 호텔 귀환 및 휴식 	조: 호텔 중: 현지 석: 한식
제7일 5/7 (토)	런던	전용 차량 KE908	08:00 13:00 16:00 19: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조식 후 · 런던 문화체험 : 세계 3대 박물관의 하나인 대영 박물관, 런던인의 휴식처인 하이드 파크, 근위병 교대식이 열리는 버킹검 궁전, 국회의사당 웨스트민스터 사원, 웨스트민스터 사원 동쪽의 대형 시계탑인 빅벤 등 ☞ 공항으로 이동 ☞ 런던 출발(비행시간 : 10시간 50분 소요) 	조: 호텔 중: 한식
제8일 5/8 (일)	인천	KE908	14:25	☞ 인천 공항 도착 후, 해산	

전경련 CSR 해외연수단 참가신청서

지원자	성명	한글		휴대폰	
		영문 (여권)		주민번호	
	E-mail			취미	
	지원동기 (체크)		추천 <input type="checkbox"/> 홈페이지 <input type="checkbox"/> 안내공문 <input type="checkbox"/> 웹메일 <input type="checkbox"/> 기타 ()		
소속기관	직장명			부서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직통)			F A X	
	대표자 성명			업태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체크	항공좌석		이코노미() / 비즈니스(), 비즈니스 마일리지 업그레이드() * 비즈니스 클래스 승급은 추가요금 있습니다. * 마일리지 업그레이드는 항공사 사정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음.		
	호텔		2인 1실 () / 싱글룸 () * 싱글룸 사용시 ₩600,000 추가		
교육담당	성명 / 직위		전화/팩스	/	
	부서		E-mail 휴대폰	/	
	주소		(우편번호) -		
결제	계산서 요청		[체크] 입금전 청구서 요청 <input type="checkbox"/> / 입금후 계산서 요청 <input type="checkbox"/>		
비고	* 여권사본(사진 부착) 팩스 송부 요망 - 여권 가능 확인 * 사진(jpg 파일) 이메일 송부 요망 - 포켓북 제작 예정 * 비자가 없으신 참가자는 전자여권으로 신규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구 여권상 비자가 있으신 참가자는 전자여권 신규발급 불필요합니다. * 참가자가 15명 이상일 경우 진행됩니다. * 신청 후, 취소 시 기간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 『전경련 CSR 해외연수단』에 참가신청합니다.
 2011년 월 일 참가자 : (서명)

전국경제인연합회 귀중

■ 송부·문의처 : 전경련 사회공헌팀 박현정 연구원 F. 6234-5323/ Email : mghsz@fki.or.kr

< 첨부 4 > '컨퍼런스 의제 및 방문 기업·기관 개요'

'The 10th Annual Responsible Business Summit'

- 일시·장소 : 2011년 5월 3일(화)~4일(수), 영국 런던 노보텔 웨스트 호텔
- 주 제 : 사회적 책임경영의 정책과 활동간 격차 해소
(Responsible Business Policy vs. Performance : How to close the gap)
- 참관이유 : 유럽 내 가장 큰 규모의 CSR 컨퍼런스 중 하나로 기초수준 이상의 어젠더들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과 실질 성과 및 사례들을 발표할 예정임
 - 1) 유통, 에너지 등 업종별 세계 3위인 TESCO와 BP 등 유럽 내 세계적인 기업들의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New CSR 전략과 베스트 프랙티스 공유
 - 2) 전체 참석자 400여명 중 65% 이상이 실무 책임자들로 구성되어 지속가능경영 관련 선진 기업들의 실무적 어려움과 CSR 경영전략 노하우의 획득
 - 3) 미국 기업의 중동·아프리카 진출, 네덜란드 기업의 신흥경제국 진출 전략 등 글로벌 CSR 사례들을 접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CSR 전략 수립에 참고

· 5월 3일(화) 프로그램

시간	구분	의 제
09:15~09:30	개회	· Ethical Corporation 회장 등의 인사말씀
09:30~10:45	본회의 [1]	1) PepsiCo의 지속가능 전략 : 콜라 외 사업 다각화, 성과창출을 위한 매니저 평가와 동기부여/ PepsiCo , 제인 애브달라(Zein Abdalla) 대표 2) 대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 Seventh Generations의 성장과 가치유지 비결 등/ Seventh Generation , 제프리 홀랜더(Jeffrey Hollender) 공동창립자· 전 CEO 3) '좋은 브랜드와 소비자 행동변화 : Innocent와 Coca-Cola의 관계, 향후 30년의 브랜드 방향/ Innocent Drinks , 리처드 리드(Richard Reed) 공동창립자 4) 기술 분야의 녹색 혁신 : 파나소닉 포트폴리오의 '녹색화' 전략, 가전제품 기업들의 소비자 유인 전략, 녹색 전자산업의 NGO 관리, 전자업계의 '녹색'과 '지속가능성' Panasonic , 로렌 아바디에(Laurent Abadie), 유럽지사 CEO· 회장
10:45~11:15		<i>Coffee Break</i>
11:15~12:45	본회의 [2]	· 이사회 핫이슈인 지속가능성, CSR과 사모펀드 : 이사회에서의 CR 어젠다 대두, 지속가능성에 의한 소비자 신뢰형성, Alliance Boot의 플랜A, Alliance Boot의 향후 과제/ Alliance-Boots , 스테파노 페시나(Stepano pessina) 회장
12:45~14:15		<i>Lunch</i>

14:15~15:30	본회의 [3]	<p>1) B2B기업의 지속가능 비즈니스 성공 사례 : 저탄소 분야 챔피언되기, 제조업체의 친환경기술 확보 등/ Jonhson Matthey, 닐 카슨(Neil Carson) 최고경영자</p> <p>2) 소비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지속가능 브랜드 : 2011년 지속가능한 농업 비즈니스, Kraft사의 사업계획, 농업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기업, NGO와의 공동작업 활성화/ Kraft Foods, 닉 벙커(Nick Bunker), 영국&아일랜드 지사 사장</p> <p>3) 지속가능한 사업활동의 의미 : 친환경 제품의 비용/효율성의 영향력, 공급사슬 내 100% 지속가능한 원자재원, Purelt(휴대용 정수기) 제품의 시장성/ Unilever, 개빈 니스(Gavin Neath), 홍보 및 지속가능성부서 수석 부사장</p>
15:30~15:35		<i>Coffee Break</i>
15:35~16:50	브레이크 아웃 세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업체의 지속가능경영 참여 : 영국 내 가장 큰 농산물 공급업체의 최고경영자와 세계 최고 건설회사의 조달·공급체 부서장간의 이해관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duce World, 윌리엄 버게스(William Burgess) 최고경영자 - Bovis Lend Lease, 니겔 맥케이(Nigel Mckay) 조달·공급사슬 부서장 · 신흥시장에서의 좋은 사업 : 신흥시장 좋은 사업의 사회·경제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ndard Chartered, 길 제임스(Gill James) 지속가능파트·법인 부서장 - Insead, 에단 캡스타인(Ethan Kapstein) 폴뒤브릴(Paul Dubrule) 학교 교수 · 이사회가 기대하는 CR사업의 통계 : CR 사업, 이사진과의 의사소통 비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rclays, 질리언 프란센(jillian Fransan) 지속가능성 부서장 - Cantrica, 샬롯 그리조(Charlotte Grezo) 그룹 디렉터 - Toyota, 미첼 가델(Michel Gardel) 도요타 유럽지사 부사장
16:50~17:20		<i>Coffee Break</i>
17:20~18:20	브레이크 아웃 세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셜미디어 관리 - 좋은 스토리 형성 방법 : 권위있는 신문 저널리스트들이 말하는 기업 CSR의 신뢰획득 방법, 경영에 대한 미디어의 기대, 미디어로 인한 위험 대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nancial Times, 휴 윌리엄슨(Hugh Williamson) 유럽 뉴스 에디터 - The Times, 피터 스티프(Peter Stiff) 경영분야 리포터 - The Guardian, 폴 루이스(Paul Lewis) 특수 프로젝트 에디터 · 기업 전체와 CR 사업의 결합 : 사업모델과 CR간 성공적 결합(유니레버)과 70명 이상의 임원이 투입된 CR 사업(BBV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BVA, 토니 발라브리가(Tony Ballabriga) CR 담당 임원 - Unilever, 카렌 해밀턴(Karen Hamilton) 지속가능성 담당 글로벌 부사장 - Two Tomorrows Group, 마크 라인(Mark Line) 회장 - Marks & Spencer, 마이크 베리(Mike Barry), 지속가능경영 책임자 · 사회적 신뢰를 추락시키는 사업 : 위기 후 신뢰 재확보 방법(BP), CR 성과를 통한 명성 형성 방법(GSK), 논란 대처 방법(B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axoSmithKline, 줄리아 킹(Julia King) CR 부사장 - British American Tobacco, 마이크 나이팅게일(Mike Nightingale) CR 책임자 - BP, 엘로디 그랜트 구디(Elodie Grant-Goodey) 사회정책 및 지속가능 책임자

· 5월 4일(수) 프로그램

구분		의 제
09:15~10:30	브레이 크아웃 세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 신뢰를 얻는 방법 : 투자결정의 윤리적 고려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yal Bank of Scotland, 앤드류 케이브(Andrew Cave) CR분야 책임자 - Cheuverux, 스테판 보이신(Stephane Voisin), SRI분야 책임자 - PGGM, 마셀 쥬켄(Marcel Jeucken), 사회적책임 투자분야 책임자 · 아르헨티나에서의 카길社 : 신흥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공급사슬 구축(카길의 최신 제품 Truvia 감미료의 윤리적 공급원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uviaTM Europe, Cargil, 엘리자베스 페이(Elizabeth Fay) 대외협력·홍보책임자 - 찰스 시크렛(Charles Secrett), Friends of th Earth and Mallen Balker 전 임원 - Business Respect 최고경영자, Ethical Corporation지 에디터 · CR 보고서 : 전 세계 250대 기업의 80%가 보고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와 비즈니스를 위한 CR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lefonica, 알베르토 앤드류(Alberto Andreu), CR·지속가능성 분야 책임자
10:30~11:00		<i>Coffee Break</i>
11:00~12:30	브레이 크아웃 세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셜 미디어 - 소셜 미디어의 힘을 조정하는 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ell, 손 D 위긴즈(haun D Wiggins), 정책·대외협력 책임자 - Citi, 에이미 컨블루스(Amy Kornbluth), 클라이언트·직원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 기업과 혁신 : 사회적책임 비즈니스의 추진요인 또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wlett Packard, 제넷 위스취(Jeannette Weisschuh), 임원, 사회적 혁신 - Kimberly-Clark, 세실 오틀리에(Cecile Ortlieb), 전략 책임자 - EABIS, 존 스와닉(John Swannick), 전무 · 차세대의 환경 영향력 측정 방법 :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제품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mberly Clark, 톰 베리(tom Berry), 지속가능성 분야 책임자 - Interface Flor, 라몬 아라띠아(Ramon Arratia), 지속가능성 분야 임원
12:30~14:00		<i>Lunch</i>
	브레이 크아웃 세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CR 전략에 대한 NGO들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enpeace UK, 존 사우번(John Sauven) 전무 - Friends of the Earth, 찰스 시크렛(Charles Secrett) 전 임원 - Transparency International, 저민 브룩스(Jermyn Brooks) 이사회 회장 - Christian Aid, 로레타 밍겔라(Loretta Minghella) 임원 · Jaguar, Coca-Cola, South Pole의 탄소 감소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aguar Landrover, 알란 보카르트(Alan Volkaert) 운영 임원 - Coca-Cola Enterprises, 조 프란시스(Joe Franses) CR&지속가능성 책임자 - South Pole Carbon Asset Management, 크리스토프 그로벨(Christoph Grobbel) 경영파트너 · 포괄적 공급사슬 관리에 대한 사회적 이슈 다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stle, 조세 로페즈(Jose Lopez), 사업부서 책임자 및 부사장 - Unilever, 마크 엔젤(Mark Engel), 조달 관리자
15:15~15:20		<i>Coffee Break</i>
15:20~16:20	브레이 크아웃 세션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성실납세 : 기업의 책임 중 하나인 납세관련 정의(just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x Justice, 존 크리스텐슨(John Christensen) 임원 - GE,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 유럽지역 조세정책 임원 - Business Respect, 말렌 베이커(Mallen N Baker) 최고경영자 · 공동작업에서의 파트너십 구축 : 사업 지속가능성 유지에 중요한 파트너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P, 조세 아구에다(Jose Argueda), 유럽지역 CSR분야 책임자 - Save the Children, 더글러스 로즈(Douglas Rouse) 기업 파트너십 책임자 - Reckitt Benckiser, 샌드라 헤네시(Sandra Hennessy) 내부 커뮤니케이션 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환경 이슈에 참여시키는 방법 - TUI Travel, 제인 애쉬톤(Jane Ashton), 지속가능한 발전 책임자 - PepsiCo UK, 앤드류 슬라이트(Andrew Slight), 대외협력 책임자 - DHL, 윈프라이드 헤서(Dr. Winfried Haser) 외부이해관계자 관리 부사장
1620~1640		<i>Coffee Break</i>
1640~17:35	브레이크아웃 세션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SR을 통해 직원을 행복하고 생산적으로 만드는 방법 - BskyB, 조 폭스(Jo Fox), "The Bigger Picture" 임원 - Alliance Boots Group, 리처드 엘리스(Richard Ellis), CSR 임원 - Alcatel-Lucent, 카트리나 데스트리 코치란(Katrina Destree Cochran) CSR 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관리의 중요성 : UN은 2030년 지구 인구의 50%가 물부족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 관련한 지속가능한 사업방향 - Halcrow, 앤드류 클루스(Andrew Kluth), CSR 책임자 - Henkel, 롤랜드 슈레더(Roland Schroeder), 생활용품 지속가능성 책임자 - Diageo, 제리 오헤이건(Jerry O'Hagan), 글로벌 기술 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 마케팅의 중요성 : CR과 마케팅팀 간의 관계형성 - Rainforest Alliance, 브렌단 메이(Brendan May) 영국지사 회장 - Ethical Corporation, 토비 웹(Toby Webb) 설립자 - Henkel, 웨 버그만(Uwe Bergmann) CSR/지속가능경영 책임자

방문 기업 및 기관관련 자료

□ 옥스퍼드 대학 스쿨(Skoll) 사회적기업센터

○ 개요

- 1999년 이베이 창업자인 제프스콜이 설립한 스콜재단은 사람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한 사회적 변화를 위해 사회적기업가에 투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 2003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사이드 비즈니스스쿨에 888억원을 기부하여 스콜 사회적기업 센터를 창립하고 연구·교육 및 사회적 기업가를 위한 네트워크 허브역할을 하며, 학계·현장·민간기관 등을 연결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스콜세계포럼을 개최하고 있음

○ 방문의 필요성

- 노동부의 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되는 등 좀 더 심화되고 선진적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고,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업들이 많아짐에 따라 CSR과 사회적기업의 접목 및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높아짐
- 과거에는 정부 등이 사회적기업 자체에 대해 지원하고 수혜 계층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1세대 사회적기업의 고도화 등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다각적 정보가 필요하게 됨
- 동 비즈니스리더 육성 전문대학이 보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점 및 효과적인 사회적기업가 지원방안 등이 국내 사회적기업을 CSR의 일환으로 인식제고함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됨

□ HSBC(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 개요

- 1865년 홍콩의 스코틀랜드 출신인 토마스 서덜랜드가 설립한 영국의 금융그룹으로 1991년 본사가 영국 런던으로 이동. 2008년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 2000대 기업 중 1위임

○ 방문의 필요성

- 소비자 금융을 포함하는 금융그룹의 경우, B2C 마케팅의 중요성이 큼. 영국의 다국적 은행인 HSBC는 특히 스폰서십 프로그램에 CSR 요소를 더하여 기업의 신뢰성 및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영국 'HSBC'의 CSR과 스폰서십의 연계 사례」

- HSBC의 '문화 교류(Cultural Exchange)'는 국제적 규모의 예술 스폰서십으로 현재 20여 개 국가에서 진행 중임.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모기리 바틱 스쿨(Imogiri Batik School, 초를 녹여 문양을 만드는 인도네시아의 전통 염색기술 학교)을 지원하고 있고, 이모기리의 바틱 회화·제작 센터가 2006년 대지진으로 붕괴되자 박물관·작업장 재건을 도와 인도 지역 내 지지를 이끌어냄

□ Business in the Community

○ 개요

- 1982년에 설립된 850개의 기업 회원을 가진 영국 내 기업사회공헌 전문기관 중 하나임
- 영국 왕실의 비영리 활동 그룹 멤버로써 CSR 기업 평가, 교육, 포럼, 네트워킹, 자문, 사례 연구 등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 CSR 서비스 기관 네트워크인 CSR 360을 보유하고 있고 CSR 우수기업에게 Business in the Community Awards를 수여하고 있음

○ 방문의 필요성

- 최근 국내 CSR은 보건복지부의 행복나눔 N 캠페인 활동 등 민관 협력을 통한 공익마케팅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소비자에 대한 제품·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이 기업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소비자와의 연계, 공감대 형성을 위주로 한 공익마케팅이 중요해짐
- Business in the Community(BITC)의 공익마케팅(CRM: Cause Related Marketing) 캠페인은 1995년에 캐드베리 스웱프(Cadbury Schweppes) 회장과 FTSE100 기업 10여개가 공동시작한 후 영국 및 전 세계에 CSR과 수익을 연계하는 CRM의 중요성을 확산하는 계기가 됨. 현재 공익마케팅 자문 서비스는 영국 기업들의 다양한 CRM 활동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음

□ BP(British Petroleum)

○ 개요

- 1908년 윌리엄 녹스 다시가 페르시아 지역 원유탐사에 승인을 얻어 처음 원유를 발굴하면서 설립된 영국의 글로벌에너지 기업으로, 전 세계 10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원유, 천연가스 시추 및 생산, 석유화학 제품 마케팅과 공급, 대체에너지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 중임

○ 방문의 필요성

- 유럽에서는 B2B들의 기업사회참여(CCI : Corporate Community Involvement, 지역사회 경제 개발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여 CSR 사회적 수행성과 창출)가 활발함. 국내 CSR은 경제·환경의 사회적 분야의 자원봉사활동 및 사회공헌 등이 주를 이루나, ISO26000 발표 등에 의한 지역사회 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임. 특히 기업사회참여 활동은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사업 기회를 높여주고 관련 리스크를 감소·완화하는 효과가 큼. 2010년 BP의 미국 멕시코만의 사고 이후에 CSR 분야에서 해왔던 활동에 대하여 지속가능경영의 관점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음

* 「BP의 기업사회참여 사례」

- BP의 BTC(바쿠-트빌리시-세이한) 파이프라인 개발프로젝트는 파이프라인이 총 1768km로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터키 3개국을 지나 사업 영향력이 지역사회 뿐 아니라 국경간 경제적 이슈까지 포함했었음. BP는 당시 지역사회참여, 윤리경영, 옴브즈만 활동을 유기결합시켜 사업 리스크를 크게 감소시켰는데, 지역사회고충처리시스템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간 대화, 네트워킹 등을 통해 지역사회 작은 피해가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변하지 않게끔 리스크를 관리했고 프로젝트의 사회영향평가·수행성과 평가 측정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 사례로 알려져 있음

□ BT(British Telecom)

○ 개요

- 공기업으로 출발, 1984년 민영화된 BT는 현재 영국 내 2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전 세계 170여개국에서 통신사업 서비스를 하는 영국 최대 정보통신 기업

○ 방문의 필요성

-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의 리더인 BT의 전사적 지속가능경영 시스템 벤치마킹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선진화 방안을 알아보고 정보통신산업에서의 CSR 특성을 알아봄

* 「BT의 전사적 건강검진(Health Check) 시스템 사례」

- 영국 최고의 정보통신 기업인 BT는 기업 관리 시스템에 모든 'CSR' 시각을 반영하여 BT의 전 사업운영에 CSR이 얼마나 잘 스며들어 있는지 검사하는 '건강검진'(Health Check)과정을 만듦. BT의 건강 검진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임직원 건강·안전, 공급망, 정보격차 해소, 교육, 자선 등에 대한 각 비즈니스 부서들의 목표 수립, 측정, 피드백 등을 주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의 사회·환경적 요소가 경제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비즈니스 부서 임원들과 논의하는 것임. 건강검진 결과는 사회·환경·경제적 요소 관련 부정적, 긍정적 영향에 대한 상세 분석을 통해 사업 기획안들과 함께 BT사업에 반영됨

□ Tesco

○ 개요

- 1919년 잭 코헨이 설립한 동네 슈퍼마켓으로 시작하여 영국 최대 유통그룹으로 성장함. 월마트, 까르푸와 더불어 매출 대비 전 세계 Big 3 안에 드는 글로벌 기업이며 현재 유럽, 미주, 아시아 등 전 세계 14개국에서 사업을 운영 중임

○ 방문의 필요성

- B2C 유통기업 중 지속가능경영의 리더로 유명한 Tesco는 모든 유통, 물류, 판매 등의 가치가 활동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 준수를 전사적인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시스템과 연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음. 친환경 매장 운영을 통해 2020년까지 50%를 절감하는 환경경영 목표를 매년 초과달성하고 있고, 영업, 유통 및 물류 관리 분야의 지속가능한 기술펀드도 운영하며 기후변화 대비 리더쉽이 강한 영국 기업의 대표적인 선두주자로 잘 알려져 있음

* 「영국 'Tesco'의 그린 CSR 성공사례」

- Tesco는 기업 전략에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통합시켜 환경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음. 영국 내 2천 3백여개의 모든 Tesco 매장에서 운영되는 그린 CSR 활동으로는, 축산물 고기 폐기물 가스를 이용한 공장 전기 생산을 통해 스마트 그리드 전력 활용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재활용된 봉투는 휴지봉투로 활용하고, 다 쓴 판지 상자는 14일 이내에 재활용 생산하여 매장에서 다시 사용하고 있음. 2008년 바클레이즈은행이 수여하는 환경리더쉽상을 수상함

□ Shell(Royal Dutch Shell)

○ 개요

- 로열 더치 셸 그룹은 1907년 로열 더치 석유 회사와 영국의 셸 무역 회사가 합작하여 설립된 글로벌 석유 가스 기업으로 본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셸 센터는 영국 런던에 위치하고 있음. 전 세계 90개국 이상에서 원유 개발, 생산, 정제, 유통, 마케팅, 석유화학, 에너지 생산, 무역, 재생에너지 등의 광범위한 사업 분야 활동을 영위하고 있음

○ 방문의 필요성

- 석유, 가스 등 채굴 기업들은 해외 사업 개발과정에서 있어서의 과거 다양한 사업 리스크 경험을 토대로 지배구조, 인권, 노동, 반부패, 환경, 소비자, 지역사회개발 등의 ISO26000 기준 준수와 관련한 활동에 선도적 리더십을 보여 왔음. 특히 기업사회참여 활동은 해외 진출 시 사업허가 자격 획득 및 관련 리스크 감소 효과와 함께 개발 진출국의 문화적 상이성, 민감한 정치·사회적 환경 리스크를 예방하는 효과가 큼에 따라 에너지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CSR 활동 중 하나임. 그리고 이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에 통합되어 모든 사업 개발의 정책, 과정, 절차, 교육, 모니터링,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진출국의 사회적 영향평가 과정'(진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들을 고려하여 평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 「Shell의 기업사회책임 경영사례」

- 대규모 투자가 투입되는 석유가스 개발사업의 경우, 진출 지역의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업 수행 전 HRCA(Human Rights Compliance Assessment)나 나라별 위험관리(Country Risk Management) 등을 통해 사회적 영향 평가를 수행함. Shell의 경우, 1997년부터 인권경영을 경영원칙에 통합하는 노력을 시작하였으며 덴마크인권연구소가 개발한 인권자가진단 도구의 성능테스트에 2001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음. 예를 들어 사업 리스크 평가를 위해 진출국 법령, 해당 국가의 준수상황, 비즈니스 위험평가 등을 분석하고 개발사업 시 인권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기업 정책, 과정, 관행 등에 대한 자가 평가를 통하여 실행 계획까지 도출함. 2001년 북아프리카 지역 평가, '02~'03년은 중동지역 평가, '04~'06년은 셸그룹 전체와 아시아 및 동 유럽 지사에서 지역 평가를 통해 나라별 위험관리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동 테스트는 지속가능경영 부서뿐만 아니라 인사, 보안, 계약과 구매부서들과 함께 진행하여 결과를 공유하고 실행 계획을 함께 수행함